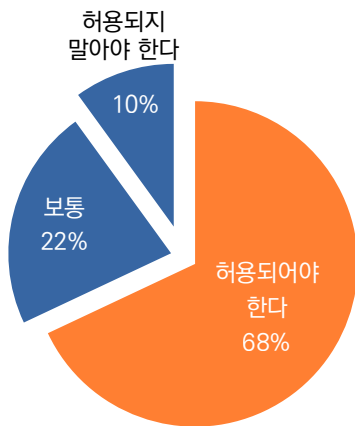




[한국인의 조력 존엄사 인식] 우리 국민 10명 중 7명, ‘조력 존엄사’ 허용 찬성!

- ‘조력 존엄사’란 오랜 시간 치료를 받는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최근 고통을 덜기 위해 ‘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’라는 차원에서 존엄사가 허용된 나라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. 하지만 종교적·윤리적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2022년 6월 ‘조력 존엄사법’이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계류 중이던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.
- 조력 존엄사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‘웰다잉 인식과 정책’ 조사 결과(한국일보·웰다잉문화운동·한국리서치)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가량(68%)은 조력 존엄사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조력 존엄사 허용 인식* (일반 국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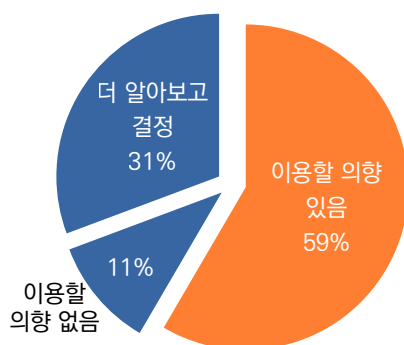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한국일보·웰다잉문화운동·한국리서치, ‘웰다잉 인식과 정책’, 2024.06.25. (전국 19세 이상 남녀 2,015명, 한국리서치, 2024.05.16.-05.23.)
(<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4061622280000576>)

*5점 척도

우리 국민 10명 중 6명, 조력 존엄사 의향 있어!

- 조력 존엄사가 허용됐을 때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‘있다’ 59%, ‘없다’ 11%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용 의향을 보였다.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‘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.

[그림] 조력 존엄사 허용시 이용 의향 (일반 국민)



※출처 : 한국일보·웰다잉문화운동·한국리서치, ‘웰다잉 인식과 정책’, 2024.06.25. (전국 19세 이상 남녀 2,015명, 한국리서치, 2024.05.16.-05.23.)
(<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4061622280000576>)